

# 키틀러 매체론에서의 정신분석학적 담론

: 매체환경과 담론 형성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최 소 영\*

- I. 서론: 매체와 무의식의 유사성, 잠복해 있는 결정적 힘
- II. 아날로그 매체 상황과 정신분석학의 등장
- III. 다니엘 슈레버의 망상과 프로이트의 해석
- IV. 프로이트의 슈레버 해석에 대한 키틀러의 비판
- V. 결론: 키틀러의 담론 해석적 관점에서의 정신분석학

## I. 서론: 매체와 무의식의 유사성, 잠복해 있는 결정적 힘

이 글의 목적은 키틀러의 매체론 내에서 정신분석학적 담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의의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매체 환경과 그것이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키틀러의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홍익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한국미학예술학회 2016년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자유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1013838).

\* DOI <http://dx.doi.org/10.17527/JASA.48.0.07>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체론과 정신분석학이라는 두 이론적 영역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이 두 영역에는 의외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나 층위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는 점이다. 맥루언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 명제의 의미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미디어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기술의 특징은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깊이 새겨져 있다. 맥루언만이 아니라 많은 매체 이론가들이 매체의 이런 숨은 영향력, 혹은 기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루서는 이미지를 이용한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대해 비판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비판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영상 뒤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악의적으로 프로그래밍한 비밀스럽고 초인간적인 힘(가령 자본주의)을 발견하고 있으나, 우둔하게도 그 프로그래밍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sup>1)</sup>는 것이다. 그는 영상, 이미지, 그리고 매체의 진정한 힘은 그 ‘프로그래밍’의 자발성, 혹은 자율성에 있다고 본다. 니클라스 루만 역시 예술의 매체와 형식을 요소들의 느슨한 연동과 촘촘한 연동으로 구분하면서 형식은 항상 매체 자체보다 더 강하며 관찰능력이 더 크다고 말한다. 매체는 형식에 저항하지 못하며 매체를 위해 가능한 형식들을 수용하지만 매체는 형식으로만 관찰될 수 있을 뿐 매체로서 관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식은 결국 ‘하나의 매체 내 형식’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잠복하고 있는 매체’다. 지빌레 크래머는,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숨어 있는 매체를 정신분석학에서의 ‘무의식’ 개념과 연결한다.<sup>3)</sup> 무의식이란 하나의 정신적 심급으로서 주체에게 뜻하지 않게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1) 빌렘 플루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윤종석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 81.

2) 니클라스 루만, 『예술체계이론』, 박여성, 이철 옮김 (한길사, 2014), pp. 210-213.

3) Sybille Krämer, "Das Medium als Spur und als Apparat", in: *Medien Computer Realität*, Sybille Krämer (hrs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pp. 73-94.

작동한다. 예를 들어 꿈을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한 층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며 그것을 꿈-사고와 꿈-내용으로 구분하는데, 꿈-사고란 겉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기호 형식이고 꿈-내용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한다. 그리고 꿈-내용은 마치 상형문자로 씌어 있는 것 같아 그 기호를 꿈-사고의 언어로 옮겨 놓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sup>4)</sup> 무의식은 이렇듯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기능한다. 크래머는 바로 이런 모델의 도움을 받아 기호(Zeichen)와 매체를 구분한다. 기호는 일종의 협약에 의거해 통용된다. 우리가 기호를 통해 지각이나 의미를 수용할 때 기호는 언제나 의도적 지각, 관습적 의미로 발생하지만 본질적으로 기호란 매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기호가 작동할 때 매체는 의례적인 의미론적 구조를 넘어서서 일종의 ‘잉여’ 혹은 ‘부가적 가치’로 기호에 관계하는데 그것은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한다.<sup>5)</sup> 기호는 매체 자체의 의미나 직접적인 작용을 해명하지 않는다. 매체는 마치 현상의 흔적을 통해 ‘무의식’처럼 작동하며, 그것은 기호를 해독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크래머는 “매체와 무의식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며, 무언가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작동하지만 의도적으로 사용된 기호에 대한 비의도적인 흔적과 같은 것이며, 무의식이 의식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처럼 메시지에서는 매체의 흔적이 드러난다.<sup>6)</sup>

이와 같이 매체이론과 정신분석적 논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키틀러의 매체론과 정신분석학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루츠 엘리히는 ‘정신분석학적 매체이론’이라는 주제 하에 이 두 연구 영역 사이의 관계를 다섯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매체론적 논의를 할당하고 있다. 그리고 키틀러의 이론은 “정신분석은, 매체가 자신의 매체적

4)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8, pp. 335-336.

5) Sybille Krämer, "Das Medium als Spur und als Apparat", p. 79.

6) Sybille Krämer, "Das Medium als Spur und als Apparat", p. 81.

조건에 대해 반성적으로 파악할 때에만 매체와 그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sup>7)</sup>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키틀러의 매체론이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접근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키틀러 역시 한 사회의 지식, 제도, 기관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기록기술, 즉 미디어의 역할을 지목한다. 특히 『기록시스템 1800.1900』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매체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혹은 그 기술의 특성이 반영되어 구축되는 사회의 제도와 기관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래머의 관점에서라면 키틀러 역시 기록기술, 즉 매체의 기능과 특징이 기록시스템을 의도치 않게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엘리히의 주장대로 그의 매체론은 정신분석학적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키틀러의 논의에서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등장한다. 특히 1900년경의 세 가지 기록기술인 축음기, 영화, 타자기의 특징은 라캉의 세 개념인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를 통해 설명된다.<sup>8)</sup> 또한 1900년경의 기록시스템 연구에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연구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의 이론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과 동시에, 키틀러의 매체론을 통해 정신분석학적 논의에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 두 관점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키틀러의 매체론을 매우 상이하게 바라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키틀러의 이론 전체를 매체적 상황과 그 무의식적 결과에 대한 연구로 볼 것인가, 혹은 정신분석학을 특정 매체적 상황에서 가능한 하나의 담론으로 볼 것인가 라는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키틀러가 정신분석학을 기록시스템 1900의 한 담론으로 보고 그 탄생 배경과 특성을 기록기술과 연관 짓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글에서 그 이유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7) Lutz Ellrich, "Psychoanalytische Medientheorien", in Stefan Weber (hrsg), *Theorien der Medien* (Dresden/Salzburg: UVK, 2010), p. 234.

8) 이 주제에 대해서는 최소영, 「키틀러 매체론에서의 정신분석학 연구-라캉의 개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43집, 2015 참조.

그것은 키틀러의 매체론, 혹은 기록시스템 연구가 지닌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매체환경 속에서의 담론의 탄생 및 발전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점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시대의 매체기술의 특징이 정신분석학적 담론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증명하고자 하며 그 과정을 통해 키틀러의 매체론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위해 정신분석학의 등장에 대한 키틀러의 논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로써 매체 상황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환이 어떻게 하나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니엘 슈레버의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sup>9)</sup>과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키틀러의 비판과 재해석 등을 연구할 것이다.

## II. 아날로그 매체 상황과 정신분석학의 등장

기록시스템 1800과 1900의 차이가 시작되는 지점은 두 시대 사이의 ‘언어’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다. 기록시스템 1900에 대한 연구에서 키틀러가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인물은 니체인데, 니체가 주장하는 언어이론이 고전-낭만주의 시대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 형이상학을 허구적 관념이라 불신하는 니체는 언어 역시 인간 중심의 대담한 은유일 뿐 자연과 연결된 통로라는 식의 이해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니체는 자신에게 들리는 어떤 잡음, 즉 이명과 같은 것들은 문자로 결코 표기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가 마치 이런 이명처럼 자신에게 그 의미를 결코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고 기록함으로써 기록시스템 1800과 똑같은 기록기술인 문자를 통해 그것을 해체한다.<sup>10)</sup> 이제 문자는 최소기의부터 이미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자연으

9) 다니엘 파울 슈레버,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김남시 옮김 (자음과모음, 2010).

10)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윤원화 옮김 (문학동네, 2015), pp. 317-321

로부터 비롯되어 전인적 인간을 지향하는 기록기술이 아니라 타자기 자판처럼 배열되어 그 조립을 통해 위상 기하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의미를 발생시키는 난수 제조기가 된다.

에빙하우스의 정신물리학적 실험은 언어가 어떻게 음절들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지독한 난시였던 니체의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던 타자기는 문자를 낱말의 음소로 분리하여 공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를 가시화한다. 이제 문자의 ‘의미’는 의미의 배경처럼 작용하는 잡음, 즉 무의미 속에서 떠오르는 우연의 결과물이자 인간의 의식의 배경으로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무의식의 산물이 된다.<sup>11)</sup>

1839년 사진의 등장 이후 1877년에는 축음기가, 그리고 1895년에 영화라는 기록기술이 등장하며 기록시스템은 새롭게 구축된다. 이들 기술을 통해 광학적 데이터와 청각 데이터가 그 물질적 흔적 혹은 물질성 자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시스템 1900의 세 가지 주요 미디어인 축음기, 영화, 타자기는 키틀러에게 각각 녹음기술, 녹화기술, 그리고 문자의 기계적 기록기술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매체들은 저마다 기록방식이 완전히 달라 호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기록시스템 1800년경의 시는 모든 분야의 매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최종 심급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런 자유로운 매체간의 ‘번역’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호환성은 번역이 아닌 ‘매체치환’으로 볼 수 있는데, 키

참조.

- 11) 이것은 매우 심오해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상황을 생각해 보면 경험적으로 이해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1804년의 기차에 이어 1886년에 자동차가 등장하고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생활공간은 그 이전과 달리 소음으로 가득 찬다. 키틀러가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E.T.A.호프만의 『황금항아리』에서, 안젤무스가 나뭇가지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무의미한 소음 속에서 일상적으로 거주하게 된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근대적인 도시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환영했던 미래파 작가들은 도시의 특징을 ‘소음’으로 보는 작품을 그리기도 한다 (보치오니, <거리의 소음이 집 속으로 파고든다>, 1911 참조).

틀러는 기록기술간의 비호환성, 그리고 매체치환을 담론적 특징으로 하여 구축된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 보고 있다. ‘꿈의 해석’이 바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꿈은 나타나는 그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바로 이미지를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키틀러는 이미지를 언어로 바꾸는 이 매체치환의 과정을, 영화적 상징성을 수사학적이고 문자적인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보며 이것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특징으로 규정한다.<sup>12)</sup>

꿈은 마치 영화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키틀러는, 정신물리학이 인간의 보편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축했던 방대한 자료를 프로이트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즉 개인의 발화 체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무의식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은 개별 사례의 축적과 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의 개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발화 체계를 추적하는 이러한 작업은 마치 축음기가 무의미한 소음을 포함한 모든 소리를 기록하듯이 환자의 모든 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환자의 말을 듣는 정신분석가의 귀는 마치 전화 수화기처럼 작동한다.<sup>13)</sup> 그리고 이렇게 환자의 말을 들은 분석가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한다. 다시 말해 키틀러는, ‘영화’와 같은 꿈을 분석가가 ‘축음기’ 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듣고 ‘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텍스트가 탄생한다고 봄으로써, 프로이트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당시 기록기술과 정신분석학적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되는 정신분석학적 담론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신분석적 활동이 매체의 기록방식과 같은 ‘증거 확보’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실수, 즉 그 이전까지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4)</sup>

12)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p. 477-484 참조.

13)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p. 495-497.

14) Daniela Kloock / Angela Spahr, *Medientheorien-Eine Einführung* (Stuttgart: W.Fink, 2012), p. 182.

또한 정신분석학적 담론은 결국 텍스트다. 즉 영화와 축음기의 기록과 달리 글로만 기록함으로써, 프로이트는 이미지와 소리라는 비문자적인 것은 놓치게 된다.<sup>15)</sup> 그리고 그렇게 남는 프로이트의 글은 영상도 소리도 아닌 글로 만들어진 예술, 즉 ‘문학’이 된다.<sup>16)</sup> 즉 키틀러에게 정신분석학은 기록시스템 1900의 새로운 담론으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는 정보 데이터의 해석이자 새로운 유형의 문학 텍스트이기도 하다.

키틀러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사례들 속에서 현시된 광기와 꿈들이 예술적인 명성과 승리를 얻게 된 사례로 카페 볼테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취리히 다다이스트들을 언급한다. 이들의 예술 활동은 ‘반(反) 예술’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전통적인 예술적 행위와는 매우 달랐다. 카페 볼테르에서 휴고 발과 트리스탄 차라, 윌젠백, 에밀 폰 안코 등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중에는 여럿이 한꺼번에 말하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때로는 이런 행위들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여럿이 동시에 말하거나 떠들 때 그것은 분명 인간의 음성이지만 의미는 불분명해진다. 다다이스트들의 이러한 예술 활동이나 그들의 시는 인간의 목소리가 세계와 갖는 투쟁을 보여주는데 그 세계는 피할 수 없는 속도와 소음으로 인간의 음성을 위협하고 질식시키고 파괴한다. 다다이스트들은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채택한 최초의 예술 사조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자동기술법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우연의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키틀러는 다다이스트들의 퍼포먼스와 시가 인간의 목소리가 통과하는 소음을 모방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현대적 매체의 배경이라 말함으로써 그들의 예술적 작업을 당시 매체기술의 특징과 관련 짓는다.<sup>17)</sup>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기록시스템 1900의 시대에, 시는 광기를 모방

15) 환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할 때, 환자들의 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소리, 그리고 꿈에 대해 말할 때 발생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나 찡그리는 표정 등은 기록되지 않게 된다.

16) “문학은 말 만드는 사람이 수행하는 말의 예술”(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436)이라는 키틀러의 언급은 ‘시란 말로 쓰는 것이지 발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말라르메나, 문자로 된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칼리그램을 시도했던 아폴리네르와 같은 당대 시인들이 문학을 이해하는 방식과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작가는 광인을 모방한다고 본다.

아날로그 매체에 의해 가능했던 ‘소음’의 기록, 그리고 매체 사이의 호환 불가능성. 키틀러에게 정신분석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새로운 담론이자 텍스트이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학은 특정 매체적 상황에서 가능했던 특정 담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시스템 1800의 문학이 그러했듯 기록시스템 1900의 정신분석학은 당대의 매체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담론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 공고해졌을까. 이 글에서는 자신의 망상 증세를 글로 기록했던 환자 다니엘 슈레버의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이후 『회상록』으로 표기)에 대한 프로이트의 해석을 그 예로 들고자 한다. 키틀러의 ‘기록시스템’은 바로 슈레버가 만든 개념이자 용어이다. 슈레버의 용어 ‘기록시스템’은 원래, 자신의 생각과 말, 일용품은 물론 교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기록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 염탐되거나 미리 예측되는 어떤 폭력적 기제를 지칭한다. 키틀러는 이 용어를 문화적 기제로서의 매체기술 관련 용어로 변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고의 제약’을 받는지, 그리고 글쓰기란 결국 이 제약에 맞서 제한된 자유일 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슈레버의 글은 또한, 프로이트의 분석 대상이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 글을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로 보고 있다.

### III. 다니엘 슈레버의 망상과 프로이트의 해석

슈레버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을 둘러싼 기록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이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회상록』에서 신경으로 이루어진 신이 자신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경언어를 통해 사유 강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만

17)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28 참조.

들고 있으며 신의 광선들은 그 생각을 알려고 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할 생각과 말을 미리 말함으로써 그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슈레버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목소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신의 광선과 교류 상태에 있는 자신이 점차 여성의 몸을 갖게 되었고 신에 의해 성적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슈레버에 의하면 세계질서,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신과 인간 영혼 사이의 교류는 인간의 사후에만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인간의 신경은 신의 신경을 흡인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은 시체에만 위험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자신은 예외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과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몸이 되어 신과 교접하고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망상의 주된 내용이었다. 슈레버는 자신에게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를 폭로하기 위해 『회상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책은 그가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저항이자 치료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슈레버는 이 책에 자신을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였던 플레히지히 박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초감각적인 힘과의 교류를 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신경체계에 플레히지히의 신경체계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즉 플레히지히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최면술이나 암시적 방법으로 자신의 신경과 교류를 해 온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플레히지히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들’과의 소통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그도 자신이 겪은 비전을 경험했으리라 주장한다.<sup>18)</sup>

이 책은 편집증 환자가 자신이 겪는 증상을 텍스트로 정리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프로이트 역시 「편집증 환자 슈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sup>19)</sup>에서, 이 회상록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신과 직접 교류하고 있다는 슈레버의 망상을 종교적 편집증의

18) 다니엘 파울 슈레버,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pp. 14-19 참조.

19) 지그문트 프로이트, 「편집증 환자 슈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누대인간』,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2005).

핵심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가 신체의 여성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이것이 매우 희귀한 사례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몸이 여자로 변한다는, 즉 거세된다는 생각이 구원자 망상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는 성적 피해망상이 종교적 과대망상으로 바뀐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또한 슈레버의 망상이, 인간의 영혼이 몸의 '신경'에 있으며 이 신경은 매우 가느다란 실처럼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신은 속성상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남자의 정액에는 아버지에 속하는 신경이 들어있고 이것이 어머니의 몸에서 온 신경과 합쳐져 새로운 개체가 된다는 주장 등에서 정자의 개념이 신경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관찰한다. 그리고 슈레버가 말하는 천국의 행복 상태가 남성과 여성적 상태로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 등에도 주목한다. 즉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피해망상이나 신경 개념에 강하게 작용하는 성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슈레버의 기록을, 신경 정신계 병의 근원을 환자의 성생활에서 찾아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그는 슈레버를 확대하는 역할이 플레히지히 교수나 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전이> 작용으로 설명한다.

<전이>란 감정적인 리비도의 집중이, 자신에게 중요했던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자신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가 자기에게 훨씬 가까웠던 사람의 대리인, 혹은 대행자로 선정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그 환자는 의사를 보고 그의 아버지나 형이 생각났다. 즉 의사 안에서 그들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sup>21)</sup>

프로이트에 따르면, 플레히지히는 슈레버의 형에 대한 감정이 전이된 대상이며 신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 전이 대상이 된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슈레버가 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한편으로는 불경스러운 비판과 반항적 불복종이, 다

20)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p. 117-118.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 151.

른 한편으로는 공경과 헌신의 태도가 섞여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병의 원인은 동성애적인 충동이 터져 나온 것이라 주장하며 슈레버의 사례를 ‘아버지 콤플렉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환자와 플레히지히 사이의 갈등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유아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슈레버를 확대하는 존재가 처음에는 플레히지히였다가 신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편집증은 분해하고, 히스테리는 압축한다. 아니 편집증은 무의식이 압축하고 동일화해 놓은 것을 그 성분 요소로 다시 분해하는 것이다. ... 플레히지히와 신을 분해하는 것은 박해자를 플레히지히와 신으로 분해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관계의 복제품인 것이다. ... 만약 슈레버가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 플레히지히라면, 신은 그가 사랑하던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했던 다른 사람이 다시 출현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고의 연상은 정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이 그의 아버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플레히지히는 그의 남자 형제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이었을 것이다.<sup>22)</sup>

이렇게 하여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증상은 동성애적 소망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슈레버가 자신의 동성애적 환상과 화해하며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콤플렉스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프로이트가 슈레버의 『회상록』에서 흥미를 느끼는 다른 부분은 ‘리비도’ 집중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슈레버의 망상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확신한다.

22)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p. 154-155.

슈레버의 <신의 빛살>은 해의 빛살과 신경줄, 그리고 정자가 통합된 것인데, 사실 리비도 집중이 바깥으로 향하여 뺀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그의 망상은 우리 이론에 놀랄 정도로 들어맞게 된다 ... 슈레버의 망상 구조의 다른 자세한 면들은 그 과정들을 정신 안에서 인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 과정들이란 이제까지 내가 편집증을 설명하는 근거로 가정했던 과정들이다.<sup>23)</sup>

그리고 이런 확신 때문에, 자신이 슈레버의 책을 보기 이전에 이미 편집증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sup>24)</sup> 또한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사례에서 환자가 신의 빛살에 대해 얘기하며 신을 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종교의 기원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찾고 있기도 하다.<sup>25)</sup>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이후 「토텐과 터부」 등의 논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 슈레버의 『회상록』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을 인간의 문화적 기원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프로이트의 슈레버 해석에 대한 키틀러의 비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키틀러는 기록시스템 1900의 기록기술의 특징을 매체치환으로 본다. 그는 이것이 농담, 신비주의,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새로운 학문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26)</sup> 그리고 그 새로운 학문이란 바로 정신분석학이다.<sup>27)</sup> 프

23)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 188.

24)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 189.

25) 지그문트 프로이트, 『늑대인간』, p. 192.

26)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477.

27) 물론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며 이후에도 많은 이론가들의 연구

로이트에게서 ‘꿈은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번역 불가능성의 정확한 상관물로서 매체 치환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전체를 아우른다.<sup>28)</sup> 즉, 프로이트의 담론은 무의미한 말들을 철저히 기록하는 기록시스템을 탐구하여 그에 내재된 기표의 논리를 사람들에게 각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sup>29)</sup> 키틀러는 1900년식 기록시스템은 모든 담론이 백색소음을 배경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꿈, 농담, 말실수 등에서 병인을 추적하는 정신분석은 태초의 혼돈 자체를 드러내지만, 분절된 문자의 형태로 승화된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기록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슈레버 해석은 일반적인 환자 치료, 즉 이미지인 환자의 꿈을 텍스트로 치환하는 것과 달리 애초부터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프로이트는 자신이 환자들에게 수행했던 일명 ‘말하기 치료’가 편집증 환자에게는 별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가 쓴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키틀러는 프로이트가 『회상록』을 망상증 환자가 쏟아내는 헛소리가 아닌 어엿한 이론적 텍스트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것은 프로이트에게 텍스트가 갖는 특별한 지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글 쓰기 기법이 광학적 혹은 음향적 데이터의 흐름을 말로 치환하고 이 말들을 다시 문자들로 치환해서 자신의 텍스트를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처음부터 텍스트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 그의 학문적 방법은 불가능해지거나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키틀러는, 프로이트는 저자가 누구든지 텍스트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며 그 텍스트의 증언적 기능을 신뢰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

가 진행되며 훨씬 복잡하고 풍성하게 전개된다. 이 글에서는, 그리고 키틀러가 프로이트에 접근하는 맥락 역시 그 담론의 ‘출발’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28)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479.

29)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493.

30)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04.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이트는 회상록에 대한 분석 끝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분석’이 거의 불필요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신이 세운 리비도 이론의 기본 전제가 슈레버의 책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서전적 텍스트가 편집증에 대한 자신의 관찰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슈레버의 뇌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생생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듯하며 슈레버의 사례와 프로이트의 이론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잘 들어맞는다.<sup>31)</sup>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프로이트의 생각대로 그의 가설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상황일까.

키틀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가설을 상정한다. 만일 슈레버의 광기의 기록과 프로이트의 이론이 ‘같은 근원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어떨 것인가. 다시 말해 정신분석학적 담론의 근원인 ‘환자들’이 이미 당대의 정보 네트워크에 따라 잡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키틀러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슈레버의 『회상록』을 다시 해석한다.

슈레버가 자서전적으로 해부했던 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비-인간의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라이프치히 대학 신경클리닉,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소장인 교수 파울 에밀 플레이지히 박사에게 속한다. 혹은 그의 환자 슈레버가 적절히 기록한 대로 “지옥의 왕(Höllenfürst) 파울”에게.<sup>32)</sup>

즉, 키틀러는 슈레버의 회상록이, 혹은 그 회상록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망상이 플레이지히의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플레이지히는 독일 정신의학을 새로운 시대로 이끈 인물로서 정신질환에 대해 생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신체적 질병 없이 정신의 독립적인 질병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에게 정신질환은 신경질환에 다름 아니었다. 키틀러는, 플레이

31)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in: *Friedrich Kittler-Die Wahrheit der technischen Welt* (Berlin: Suhrkamp, 2013), p. 80.

32)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p. 80.

지히가 뇌의 신경섬유에 대해 작센의 알버트 왕 앞에서 했던 연설에 대해 언급한다.<sup>33)</sup> 거기서 플레히지히는 뇌의 신경섬유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작센 왕국 둘레보다도 훨씬 길다는 인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슈레버가 『회상록』에서 수천 킬로미터도 더 떨어진 우주에서 자신에게 뻗어온다고 기술하는 ‘광선’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뇌전도 기술이 아직 없던 시절이라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했던 당시에, 플레히지히의 이론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부학자였던 플레히지히에게 그의 이론은 일종의 막다른 길에 직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슈레버는 “세계 질서에 의하면 신은 죽은 자와만 신경교류를 할 수 있다.”<sup>34)</sup>고 말하고 있다. 자신은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라는 것이다.

키틀러는 이렇게 플레히지히의 뇌 생리학적 이론과 너무도 일치하는 슈레버의 망상에 대해, 슈레버가 자신을 담당한 플레히지히 박사의 이론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플레히지히는 담당의로서, 슈레버와 함께 그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긴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키틀러는, 슈레버가 작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의 법관이었던 자신이, 국가와 종교의 기반에 대한 공격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보았을 것이며, 평결문을 통해 힘을 행사하던 자신이 이제 무기력해진 채 의학적 전문가들의 손에 놓여 있다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망상의 구체적 증세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sup>35)</sup> 또한 환자 슈레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해부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 때문에 플레히지히가 예외적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신경 시스템을 관찰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슈레버의 『회상록』이 “신의 신경언어”라 칭하는 것들, 즉 그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표현”이자, “학문적, 특히 의학적 성격을 지닌 표현”을 포함

33)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p. 82.

34) 다니엘 파울 슈레버,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p. 29.

35)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p. 84.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게 된다. 그에게 말을 거는 신비한 신경언어는 플레히지히를 통해 접하게 된 당대의 코드일 뿐이기 때문이다.<sup>36)</sup> 그리고 슈레버의 회상록은 의학적인 언어들만 건드리기만 할 뿐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은 담고 있지 않다. 전문가가 아닌 슈레버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슈레버가 주창하는 ‘신경언어’는 생리학자로서의 신, 즉 플레히지히와 그의 망상적 희생자인 자신 사이의 새로운 정보 채널의 흐름을 형성한다.<sup>37)</sup>

슈레버의 담당의였던 플레히지히의 연구 프로그램은 정신의학을 뇌의 기능별 부위 식별 연구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키틀러는, 프로이트는 슈레버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슈레버의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슈레버는 자신의 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적 유리함 속에서 텍스트를 전개하고 있기에 그 텍스트의 지적재산권은 명백히 담당의사인 파울 플레히지히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슈레버는 이렇게 해서 전직 신경학자이기도 했던 프로이트가 좋아할 만한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뇌 기능에 대한 심리 내적 지각의 결과물, 정신분석을 입증하는 믿기 어려운 증거물을 만들어준 것이다. 통신 채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슈레버의 사례는 리비도 이론의 독립적이고 확실한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정신물리학과 정신분석의 연관성을 예증하는 사례다. 프로이트는 독자이자 필자로서 자기 자신도 연루되어 있는 담론 망에 맹목적으로 빠져든다.<sup>38)</sup>

키틀러는 프로이트가 큰 ‘타자’의 담론에 현혹되어 통찰력을 잃어버린다고 비판한다. 환자가 자신의 담당의사와 신에 대해 쓴 글을 전부 아버지에 대한 동

36)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14.

37)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p. 87.

38)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17.

성애적 리비도가 전이된 것으로 독해하며 그의 망상을 동성애에 입각한 정신적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키틀러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슈레버의 회상록이 잘못 해독되고 있다고 본다. 플레히지히에 대한 긴 회상록이, 거기서 아주 짧게 언급되었을 뿐인 친부에 대한 메타포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슈레버의 이른바 ‘아버지 문제’에 감정이입하면서 적대를 근친성애적 관계로 대체하고 투쟁을 인과관계로 대체한다. 그러나 아버지 슈레버의 고전적 교육 권력을 1900년경의 지극히 효율적인 권력 장치에 비견하기는 어렵다 ... 슈레버는 플레히지히에게 플레히지히의 언어로 편지를 써서, 의사들이 환각이라 말하는 것이 큰 ‘타자’의 담론에 의해 유발된 엄연한 사실임을 바로 그 의사들의 장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 슈레버의 ‘심리 내적 지각’이라는 것은 전부 슈레버를 담당한 정신과 의사의 지각을 베껴 쓴 것이다.<sup>39)</sup>

바로 이런 이유로, 슈레버는 악의에 찬 신의 담론과 연결된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모든 신경 트랙과 자신의 뇌에 있는 언어의 중심에 대해 신경생리학적 정확성을 갖고 기록할 수 있었다. “광기는 이론과 연대한다.”<sup>40)</sup> 슈레버는 마치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기록하는 천상의 존재들처럼 플레히지히의 신경생리학적 이론을 마치 헛소리처럼 기록한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심지어 프로이트조차도. 그것은 슈레버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 앞에서는 어떤 기적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sup>41)</sup>

슈레버는 자신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직접 접근하거나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가 없다.

39)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p. 520-521.

40) Friedrich Kittler,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p. 78.

41)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31.

이것은 슈레버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망상의 기록은 철저한 시물라크룸, 즉 당대의 신경생리학적 담론의 모방일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키틀러는 정신분석학적 담론이 기록시스템 1900의 문학 텍스트라고 말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신분석적 텍스트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문학 텍스트로 소비되었다는 측면과, 1900년경의 문학이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키틀러적 관점에서 슈레버의 텍스트는 새로운 문학 텍스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슈레버의 회상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900년경의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문필가는 정신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물들을 시물레이션하고, 그래서 그가 묘사한 인물들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정신질환을 흉내 내는 모방자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지시 관계가 없는 시물레이션은 광기와 질병의 오랜 결합을 녹여 없애면서 광기와 글쓰기의 결합이라는 전혀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킨다.<sup>42)</sup>

키틀러는 1900년 전후로 신경과 의사와 정신질환자, 정신분석가와 문필가가 ‘뇌와 언어’라는 수수께끼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이 주체를 제시하면 문필가들이 이를 텍스트로 형성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필가들의 글쓰기는 모든 정신물리학자가 꿈꾸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궁극의 해부, 즉 ‘살아 있는 뇌의 해부’를 대신한다.<sup>43)</sup> 이렇듯, 1900년식 기록시스템에서 정신물리학이 이론적, 통계학적인 기본 틀을 제공한다면, 정신분석과 문학은 거기에 들어맞는 개별 사례들을 기록해서 시스템을 완성한다.<sup>44)</sup>

따라서 키틀러에게, 슈레버가 기록한 것은 플레히지히가 기록한 것이고 또한 이는 프로이트가 쓴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일종의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42)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38.

43)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49.

44)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p. 560-561.

있기 때문이다.

자동기술법, 정신분석적 연상법, 자유 작문, 이런 것들은 모두 필자를 영매 또는 미디어로 전락시키는 어떤 강력한 힘의 존재를 입증한다.<sup>45)</sup>

그 힘은 바로 기록기술의 힘이자 담론들의 연쇄적 구성을 가능케 하는 토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키틀러는 이렇게 슈레버의 회고록을 재해석하며 슈레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이자 당대 정신의학의 새로운 이론을 주창했던 플레히지히의 주장을 망상증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시대의 새로운 담론,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 V. 결론 : 키틀러의 담론 해석적 관점에서의 정신분석학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키틀러의 매체론적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신분석학은 기록시스템 1900의 주요 담론으로서 아날로그 매체들인 당대의 기록기술의 특징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부의 텍스트들은 일종의 정보로 흐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특징은 문학과 같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시대의 새로운 담론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정신분석학은 한 시대의 매체적 환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담론이자 그 시대의 기록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담론이다. 키틀러의 매체이론 내에서 정신분석학은 이렇게 규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키틀러의 기록시스템, 그리고 그의 매체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키틀러에게 정신분석

---

45)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579.

학은 여러 담론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매체 상황과 담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1800년경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독일관념론이다. 독일관념론에 대한 키틀러의 접근은 그가 정신분석학을 해석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키틀러는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계보를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하나씩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등장에 힘입은 새로운 철학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맹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아동들의 표준 독일어 교육은 김나지움이라는 중등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학의 철학부에 안착하게 되니 이는 이 시대의 문자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읽기와 쓰기를 익힌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1800년식 기록시스템에서 철학은 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저자의 등장, 그리고 문학적 글쓰기 방식 자체의 투영이다. 독일 관념론은 당대의 문학과 정신적 쌍생아로서, 이 두 영역은 상상력을 필수로 하는 알파벳 문자가 탄생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양대 담론을 구축하게 된다. 이제 철학자는 이전 시대, 즉 ‘문예공화국’<sup>46)</sup>과 같이 저자 없는 익명적 텍스트를 끝없이 반복 생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을 따라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시인과 같은 존재, 즉 작가가 된다. 당시 독일의 문학과 철학은 괴테와 헤겔의 서신교환을 통해 두 담론이 서로를 묵인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47)</sup>. 그리고 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은 채 추구했던 인간은 바로 ‘파우스트’, 즉 익명적 텍스트의 순환을 깨뜨리고 나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철학자이자, 그레첸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시인이며 기록시스템 1800이 추구했던 전인적 인간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마치 시를 쓰듯 자신만의 사변적 텍스트를 새롭게 생산한다. 다시 말해 독일 관념론은 시를 기록시스템 1800의 대학의 담론으로 격상시키고 학문으로 정당

46) 원어는 Gelehrtenrepublik으로 직역하자면 ‘학자(들의)공화국’ 정도가 되겠으나 『기록시스템 1800/1900』에서는 ‘문예공화국’으로 번역되었다.

47)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277.

화하고 있는 것이다.

키틀러가 기록시스템 1800의 문학이 당시 언어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독일 관념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기록시스템 1900의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관계 역시 바로 그런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정신분석학적 텍스트가 문학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문학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한 시대의 여러 담론들이 일련의 규칙들 속에서 연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키틀러의 담론 분석이라 이해할 수 있다.

문학과 독일 관념론의 관계, 문학과 정신분석학의 관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키틀러는 하나의 담론, 혹은 지식 그리고 문화적 성과를 매우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문학을 비롯한 어떤 영역도 불변하며 영속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독일 관념론과 정신분석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학문과 지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새롭게 탄생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키틀러는 개별 매체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과 지각의 토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우리의 담론과 지식은 매체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sup>49)</sup> 기록의 방식 혹은 기술은 우리의 사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준거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키틀러는 바로 그 준거점을 따라 문화사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틀러의 연구는 푸코의 작업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키틀러는 푸코의 영향

48) Henning Schmidgen, "Eine original Syntax-Psychoanalyse, Diskursanalyse und Wissenschaftsgeschichte", in: *Mediengeschichte nach Friedrich Kittler*, Balke, Siegert, Vogl (Hrsg.) (München: Wilhelm Fink, 2013), p. 29 참조.

49) Klook과 Spahr는 이에 대해 (키틀러에 있어) 매체기술은 가족, 대학과 같은 기관들 혹은 학문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며 이들을 통해 한 시대의 연관된 데이터 모두가 흐르고, 그 체계는 정보의 분포, 수용, 전송의 규칙들을 양성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 문화의 지식은 그렇게 공식화, 통제화되며 동시에 생산된다는 것이다 (Daniela Klook / Angela Spahr, *Medientheorien-Eine Einführung*, p. 168 참조).

을 크게 받고 있으며 또한 푸코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푸코가 에피스테메의 변화를 주장하며 이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답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담론의 규약을 철학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만 한정하고 기술적 차원을 묵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0)</sup>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기록기술을 상정한다. 그는 푸코가 구축하고자 했던 지식의 계보학을 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의 역사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담론 규칙들의 생산과 순환이 어떻게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분석하고 있으며<sup>51)</sup>, 정신분석학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런 키틀러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의 앞에서 언급했었던 키틀러의 이론과 정신분석학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 즉 그의 이론 자체를 정신분석학적 매체이론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키틀러가 기록시스템의 변화를 기록기술의 변화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기록시스템이란 바로 이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가 어떤 양상으로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기술과 담론의 관계를 역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일으킨다고 본다. 기술 변화의 결과가 새로운 담론인가, 혹은 담론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가 라는 두 질문 중 잘못된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키틀러의 이론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시스템 1800을 가능하게 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당대 교육학의 변화를 계기로 일어났으며, 기록시스템 1900을 가능하게 한 언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매체기술의 등장은 정신물리학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굳이 기술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도 중요한 담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술의 변화가 담론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매체이론은 매체(기술)결정

50)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p. 486.

51) Daniela Klook / Angela Spahr, *Medientheorien-Eine Einführung*, p. 9.

론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기술과 담론이 유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과 어떤 담론이 그 시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키틀러는 문자라는 기록기술의 새로운 이해와 그 결과로 등장한 문학과와의 관계 분석, 아날로그 미디어의 등장과 정신분석학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한 시대의 구체적인 지식 담론들과 기술의 관계를 분석하다는 점에서 그의 매체연구의 특징과 의미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해석의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의 의견이 갈릴 수 있겠으나 그의 작업을 통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그의 매체론의 의미로 결론 내리고자 한다.

---

\* 논문투고일: 2016년 6월 16일 / 심사기간: 2016년 6월 17일-7월 12일 / 최종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6일.

## 참고문헌

- 니클라스 루만, 『예술체계이론』, 박여성, 이철 옮김, 한길사, 2014.
- 다니엘 파울 슈레버, 『한 신경병자의 회상록』, 김남시 옮김, 자음과모음, 2010.
- 빌렘 플루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윤종석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김인순 옮김, 열린책들, 2008.
- \_\_\_\_\_, 『늑대인간』, 「편집증 환자 슈레버-자서전적 기록에 의한 정신분석」, 김명희 옮김, 열린책들, 2005.
- 프리드리히 키틀러, 『기록시스템 1800.1900』, 윤원화 옮김, 2015, 문학동네.
- Ellrich, Lutz, “Psychoanalytische Medientheorien”, in: *Theorien der Medien*, Stefan Weber(hrsg), Dresden/Salzburg: UVK, 2010, pp. 232-238.
- Krämer, Sybille, “Das Medium als Spur und als Apparat”, in: *Medien Computer Realität*, Sybille Krämer(hrsg),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8, pp. 73-94.
- Kittler, Friedrich, “Fleischig/Schreber/Freud. Ein Nachrichtennetzwerk der Jahrhundertwende”, in: *Friedrich Kittler-Die Wahrheit der technischen Welt*, Berlin:: Suhrkamp, 2013, pp. 76-90.
- Klook, Daniela / Spahr, Angela, *Medientheorien-Eine Einführung*, Stuttgart: Wilhelm Fink. 2012.
- Schmidgen, Henning, “Eine original Syntax-Psychoanalyse, Diskursanalyse und Wissenschaftsgeschichte”, in: *Mediengeschichte nach Friedrich Kittler*, Balke, Siegert, Vogl(Hrsg.), München: Wilhelm Fink, 2013, pp. 27-44, p. 29.

## 국문 초록

정신분석학은 아날로그 매체인 축음기, 영화, 타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록 시스템 1900년경의 주요 담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키틀러는 이 시대 미디어 기술의 특징인 기록기술간의 비호환성, 그리고 매체치환을 특징으로 구축된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 본다.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이미지를 언어로 ‘치환’하는 과정이다. 키틀러는 이미지를 언어로 바꾸는 이 매체치환의 과정을, 영화적 상징성을 수사학적이고 문자적인 영역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보며 이것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특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담론 내부의 텍스트들은 일종의 정보로서 흐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는 당대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플레히지히와 그의 환자였던 다니엘 슈레버의 <회고록>,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망상 증세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성적 환상과 리비도 집중이야말로 자신의 이론, 즉 신경 정신계 병의 근원을 환자의 성생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키틀러는, 슈레버의 회고록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으로 이해하며, 회고록에 등장하는 신이 슈레버의 아버지이자 형이라고 분석하는 프로이트의 해석에 반대한다. 키틀러는 이 회고록에 등장하는 신의 광선에 대한 이야기나 신경만으로 이루어진 신의 존재, 그리고 시체와만 교류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플레히지히 박사의 이론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보고, 그와의 상담과정 등을 통해 얻게 된 당대의 지식이 슈레버의 망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슈레버의 회고록은 정신분석적 텍스트의 근원이라 할 정신질환자들이 당대의 정보 네트워크에 이미 따라 잡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담론인 정신분석학은 문학과 같은 다른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담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즉 키틀러가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은 우리의 지식 담론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탄생, 발전하며 그 토대에는 기록기술에 의한 매체적 환경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매체가

론과 정신분석학적 논의는 둘 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나 층위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두 영역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리고 키틀러의 매체론 역시 그 자체로 정신분석적인 이론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매체환경과 담론 형성의 상관관계를 중시하는 키틀러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키틀러에게 정신분석학은 기록시스템의 선형적 조건이 아니라 매체적 환경 속에서 출현하는 여러 담론 중의 하나로 보아야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핵심어

기록시스템 1900, 다니엘 슈레버, 정보 네트워크,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플래히지히

## ABSTRACT

### Psychoanalysis in Kittler's Media Theory :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n environment and formation of the discourses

So-Young Choi\*

Psychoanalysis might be seen one of important discourses of Aufschreibesystem 1900 that is based on the analogic media as like Gramophone, Cinema and Typewriter. Then Kittler insists that psychoanalysis is featured with incompatibility between technologies and media-transpos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media technology. The process of Freud's interpretation of dreams is a process to 'translate' images to the languages. Kittler has regarded the process of media-translation which images to the languages as a course that cinematic symbolism to the area of rhetoric and literal. It is prescribed as a peculiarity of Freud's psychoanalysis then. The inside text of the new discourse is flowed as a kind of information and developed which is influenced each other, and we can find those kind of examples in the relationship among Flechsig who had been a famous psychiatrist and his patient Daniel Schreber's <Memory>, Freud's analysis about the text. Kittler opposed to Freud's comprehension that he has figured out Schreber's memory as a oedipal writing by means of understanding the

---

\* Lecturer, Hongik University

god in the memory as Schreber's father and brother. Kittler has thought the stories of this memory that god's ray or god itself consisting solely of nerve, the story that god only can interact with corpse etc. are similar to the theory of Dr. Flechsig so much so that he has insisted the contemporary knowledge that Schreber might get through the counsel with Dr. Flechsig has become the concrete contents of Schreber's delusion. That is Schreber's memory is not a case that proves Freud's theory, but it is the evidence that the psychopathic patients who are the source of psychoanalytic text had been caught up with the contemporary information networks already. Besides, the new discourse is influenced on the other discourses as like literature so that they can form a new discourse network.

#### **Key Words**

Aufschreibesystem 1900, Daniel Schreber, Flechsig, Freud, information networks, psychoanalysis

